

## 청소년이 있는 농촌가정의 수입식품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이건순 · 이승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식품영양)

수원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1995년 10월 30일 접수)

## A Study on the some aspects of use of imported foods at the rural homes with the growing generation

Geon Soon Lee and Seung Gyo Rhie

*Dartment of Home Economics, The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D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age of Human Ecology, The Suwon University*

(Received October 30, 1995)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grasp some aspects of use of imported foods at the rural homes with the growing generation. So we put some questions to the 399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number of the homes using the imported foods, which marks 56.9% of the whole, was higher than the number of the homes not using the ones. (2) Even though the use of imported foods had no relation with the occupations of the student's mothers, the degree of living quality, the situations of food consumption, and so on, however the use ratio was high at the homes of middle class. (3) The students of the home of using imported foods favored the traditional diets, and marked 63% of the objective students of investigation. The students who like the western style of diets marked the high frequency of the use of the imported foods. On the other hand, the students who like the Chinese foods used the meat and fishes and processed foodstuffs among the imported foods. (4) The frequency of instant foods for the carried lunches showed the meaningful relation with frequency of use of imported foods. (5) In the view of use of instant foods for the lunches, the group of people who carried the lunches 3 or 5 times per week used the imported meat foods, the other group who carried the lunches 1 or 2 times per week marked the high frequency of having coffee and tea.

### I. 서 론

청소년에게 우리 농산물의 애용을 위한 교육은 최근 UR의 타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적극 개방과 함께 시장 경쟁 시대를 의미하는 WTO 체제가 시작되어 이의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 애용에 관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며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수입식품에 대한 개념과 청소년 가정의 이용실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농산물은 국제적으로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쌀을 비롯한 우리의 농산물 시장은 주위의 여러나라에 많이 잠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알면

서도, 혹은 모르는 채로 이런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수입식품의 대다수는 중국을 비롯한 후진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것이며, 이들은 생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도 맹독성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대부분의 후진국 생산자들은 이 맹독성 농약에 대한 위험을 알지 못한 채로 사용량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별로 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1-4)</sup>.

한 나라의 식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에는 지역적인 영향과 소득정도, 가족과 어머니의 영향, 사회적 환경을 들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식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국제화 정보화 외식화의 영향을 들 수 있어 우리의 식생활에 맞는 문화를 정착하고 우리의 식문화를 지키는 것은 "신토불이"라는 인체생리적 측면과 우리농산물의 애용으로 농민을 살린다는 경제적 측면과 민족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계승 발전한다는 정신문화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sup>29)</sup>.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입식품에 대한 의식은 주로 안전성에 의심을 가지고 있고 맛과 신선도 품질이 모두 떨어진다고 보지만 국내 농업의 취약한 경쟁력으로 우리의 농산물은 비싼 가격을 형성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며<sup>30)</sup> 이런 시기에 우리의 책임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에게 바른 식습관을 가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으로 본다. 물론 청소년기 식습관이나 기호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오지만 이 시기의 균형잡힌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는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sup>6-10)</sup>.

우리나라 청소년은 과열된 학습과 불규칙한 식사, 빈약한 아침식사, 부적당한 간식등의 불충분한 식품섭취로부터 오는 영양불량, 빈번한 패스트푸드의 섭취, 운동부족으로 인한 영양과잉의 문제로 양극화 되어 있는 현상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에 경제적 격차도 문제이며 특히 농촌주부의 역할 증대로 인해 가족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부족될 우려가 크며, 이런 과정에서 농촌 청소년들은 영양의 방임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대체로 식품선택에 편이식품을 선호하여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고 청소년의 비만이나 불량한 식습관에 의한 성인 질병의 발병 우려가 높다.

제 2의 성장기인 청소년기는 자아개념의 확립 시기와 함께 올바른 식습관의 확립에 중요한 시기이다<sup>11-14)</sup>. 특히 농촌소비자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가격이 싼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sup>31)</sup> 가격경쟁력이 큰 수입식품이 밀물처럼 흘러 들어오는 시기에 우리의 농촌 청소년의 식습관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또 수입식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촌 가정에서 수입식품의 이용도와 그 인식에 대한 실태를 알 필요가 커지고 있으며, 현재의 수입식품과 식생활 형태를 비교하여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 II. 연구 방법

조사대상은 전국 농촌지역을 산간지 평야지 해안지로나누어 각 지역의 학교를 표본추출 단위로 하여 층화집락 추출로 하였으며 대상학교는 전국 각도에서 1개 교씩 9개 중·고등학교를 선정, 남녀 학생 500명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가정의 상황과 수입식품의 섭취에

대한 문항을 질문지법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 불충분한 질문지를 제외한 성실한 응답지 399부(80%)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수입식품의 섭취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가족특성을 포함하는 일반사항과 다양한 수입식품종류를 식품군별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식품을 제시하였으며, 수입식품의 이용과 관련이 크다고 보이는 선호하는 음식의 양식과 인스턴트식품의 이용빈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영양지식의 정도가 식품선택에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여 영양소에 관한 문항 5, 대사에 관련된 문항 5, 식품에 관한 문항 5와 식품관과 균형식 문항 5로 하여 20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조사 기간은 1995년 6월 2일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한 후 1995년 6월 5일~6월 30일 사이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농촌진흥청 VAX중 SA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 결과는 평균과 편차 및 빈도와 퍼센트로 나타냈으며 유의성을 알고자 할 때는  $\chi^2$  값을 보아 비교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농촌가정의 수입식품이용 여부에 따른 가족사항

조사대상 399 농가의 수입식품 이용농가와 이용하지 않는 농가의 비율은 57 : 43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조사된 농가의 가족 현황을 수입식품의 사용에 따라 분류하여 다음 표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입식품을 이용하는 가정이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다 많아 이미 수입식품을 어떤 형태로든지 먹고 있는 가정이 농촌에서도 더 많음을 알 수 있고 가족수가 많은 가정이,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많이 섭취하며, 어머니 학력은 높을 수록 많이 섭취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연령이나 가족의 월간소득과는 수입식품의 이용에 무관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조사대상이 된 중학생의 식생활에 대한 태도를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식생활은 보통 이상으로 먹지만 먹고 싶어도 못먹는다고 답한 학생도 있어 생활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아직도 식사는 배고픔의 해결이나 습관적으로 먹는다고 답한 학생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락에 인스턴트식품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번은 쓰고 매일 이용하는 가정도 22가구 즉, 6%나 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가족현황

가족현황	수입식품	수입식품이용		수입식품비이용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족수(명)	1~3	34	( 8.6)	37	( 9.3)	68	( 17.4)
	4~5	108	(27 )	87	(21.8)	195	( 49.4)
	6 이상	85	(21.3)	48	(12 )	133	( 33.3)
가족형태	대가족	38	( 9.5)	29	( 7.3)	67	( 16.8)
	핵가족	149	(37.3)	117	(29.2)	266	( 66.7)
	편부	5	( 1.3)	3	( 0.8)	8	( 2 )
	편모	24	( 6 )	13	( 3.3)	37	( 9.3)
	기타	11	( 2.8)	10	( 2.5)	21	( 5.2)
어머니 학력	무학	6	( 1.6)	10	( 2.5)	26	( 5 )
	국졸	16	( 4 )	79	(19.8)	166	( 40 )
	중졸	87	(22 )	47	(11.8)	124	( 30 )
	고졸	77	(19.4)	30	( 7.5)	67	( 15 )
	전문대졸	37	( 9.4)	4	( 1 )	41	( 9 )
	대졸	2	( 0.5)	2	( 0.5)	4	( 1 )
계		227	(56.9)	172	(43.1)	399	(100 )

표 2. 수입식품의 이용여부에 따른 가족특성의 차이 비교

(M± SD)

가족특성	수입식품	단위	수입식품이용	수입식품비이용	전체
가족수(399)		명	5.1± 1.8	4.7± 1.6	4.96± 1.71
주부연령(397)		세	42.5± 8.9	42.7± 7.8	42.6± 8.5
가족월간소득(395)		만원	152.3± 84.6	152.7± 73.6	152.5± 79.9

황혜선등<sup>15)</sup>의 목포지역 대학생 연구에 의하면 식생활 행동에서 음식이나 식사를 하는 목적이 주로 배고픔의 해결(34%)과 습관적(20%)이라고 한 것과 비슷하였으나, 건강을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도 많았으며, 이는 10년 전의 이성운<sup>16)</sup>의 연구에서 공복감의 해소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어 청소년의 식사가 단순한 공복감의 해소 기능만으로 여겨졌으나 여기에서는 건강을 위한 다는 식사개념으로 의식이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

이원희등<sup>17)</sup>의 중학생의 인스턴트식품의 이용이 대구 지역에서 조사된 바, 전혀 먹지 않은 비율은 2.8%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었으나, 본 조사의 도시락에 인스턴트식품의 이용은 전혀 쓰지 않는 비율이 14%나 되어 식생활이 향상되면서 인스턴트 식품의 이용이 많아지는 경향도 있지만,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그 피해를 인지하여 이용을 더 자제하는 면도 있지 않으나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 청소년의 식생활에 대한 태도

식생활에 대한 태도		빈도	백분율
식생활 정도	먹고 싶어도 못먹음	13	3
	보통 먹음	254	64
	충분히 먹음	132	33
식사개념	배고픔 해결	136	34
	습관적	79	20
	건강을 위해	156	39
	가족화목	18	5
	식생활문화의 계승	9	2
수입식품 이용	한다	227	57
	안한다	172	43
도시락 인스턴트 식품	매일 이용	22	6
	주 3~5회	84	22
	주 1~2회	231	58
	전혀 안씀	56	14

표 4. 가족환경과 수입식품이용의 관계 비교

가족환경		수입식품이용	수입식품이용	수입식품비이용	계	n=399
어머니직업	있음	77(19.3)	46(11.5)	123(30.8)	df=2 $\chi^2=2.94$ $p=0.23$	
	없음	144(36.1)	123(30.8)	267(66.9)		
	무응답	6( 1.3)	3( 0.8)	9( 2.3)		
생활정도	풍족	4( 1.0)	7( 1.8)	11( 2.8)	df=4 $\chi^2=8.42$ $p=0.08$	
	잘사는 편	52(13.0)	49(12.3)	101(25.3)		
	중간	159(39.6)	104(26.1)	263(65.9)		
	못사는 편	12( 3.0)	9( 2.3)	21( 5.3)		
	궁핍	0( 0.0)	3( 0.8)	3( 0.8)		
식생활형편	못먹음	7( 1.8)	6( 1.5)	13( 3.3)	df=2 $\chi^2=0.89$ $p=0.64$	
	보통	149(37.3)	105(26.3)	254(63.7)		
	충분먹음	71(17.8)	61(15.3)	137(33.1)		
식사의 개념	배고픔해결	76(19.1)	60(15.1)	136(34.2)	df=4 $\chi^2=0.69$ $p=0.95$	
	습관적	45(11.3)	31( 8.5)	79(19.9)		
	건강을 위해	92(23.1)	64(16.1)	156(39.2)		
	가정화목	9( 2.3)	9( 2.3)	18( 4.5)		
	식문화계승	5( 1.3)	4( 1.0)	9( 2.3)		

표 5. 청소년의 식생활에 대한 개념과 수입식품의 이용유무에 따른 영양지식 비교  
(빈도) 영양지식점수 평균±편차

수입식품	식생활개념	배고픔의 해결	습관적 섭취	건강을 위해	가족의 화목	식문화 계승
수입식품이용		(76)72.1± 15.1	(45)72.3± 12.6	(92)69.5± 15.6	(9)70.7± 13.0	(5)68.8± 9.5
이용않함		(60)73.2± 12.8	(34)74.2± 13.3	(64)68.6± 17.6	(9)67.9± 18.5	(4)70.0± 9.1
계		전체 (399)71.2± 14.3				

2. 수입식품의 섭취와 가족특성

그동안 우리는 수출의 급속한 증대에 의존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외국의 농산물개방에 대한 압력도 매우 심한 편이며 이로서 사실 농수산업이 아직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측에서는 수입식품에 바로 알고 대처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본다.

대체로 수입식품은 그 생산지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품류는 중국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품질은 떨어지나, 산 노동력을 이용한 다량 생산으로 가격경쟁에서는 우리의 질 좋은 생산식품이 뒤지는 형편이다<sup>12)</sup>. 이런 면이 우리 음식문화가 즐기는 식품의 유형은 서로 다름을 말하지만 많은 경우 이를 구별 못하고 쓰는 형편이다. 이에 대하여 가족의 생활환경과 수입식품의 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위 표에서 보듯이 가족의 상황에 따른 수입식품섭취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어머니의 직업이나 식생활에 대한 형편, 식사의 개념에 따른 수입식품의 이용 섭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정도에 대한 인식은 수입식품의 이용과 관련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어, 중간정도로 살고 있다고 여기는 가정에서 수입식품을 이용하는 비율이 많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로서 중학생의 식사에 대한 개념이 영양지식이나 수입식품의 이용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본 결과는 다음 표 5에 나타내었다.

청소년의 영양지식은 71.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점수는 박은숙<sup>18)</sup>에 의한 중학생의 영양지식에 대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72점이 나온 결과와 같았다. 하대열등<sup>19)</sup>의 중학생 어머니의 영양지식 점수는 77.7%로서 학생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영양지식과 식습관은 상관이 있어 식습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입식품의

이용유무와 영양지식의 정도와는 차이가 없으며 식사에 대한 개념과도 무관하게 나타났다. 하점순등<sup>20)</sup>은 실제로 식행동이 건강에 상관이 크며 학업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므로 현재의 수입식품 이용여부는 지식과는 무관한 상태를 보이는 결과이지만 우리농산물의 우수성과 수입식품의 건강상 불이익을 교육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 수입식품을 이용하는 가구의 청소년이 선호하는 음식 양식**

우리의 식생활에서 서양요리 중국요리 일본요리 등이 일반화되고 서구풍의 곡류 가공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또 온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가족식사의 기회가 줄어들고 점차 개별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개성 있는 맛이 사라지고 획일화된 맛에 길들여지며, 외식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WTO 체제의 출범과 무역 자유화는 식품의 원료를 비롯 외국식품의 수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은 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며, 한 민족의 식생활 문화는 다른 여러 문화의 전승보다 민족의 생명유지와 관련되는 기본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세영<sup>21)</sup>에 의하면 서양음식을 상품으로 하는 편이 음식점은 간편성을 위주로 젊은 층에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의 섭취가 건강과 관련되어 문제 시되는 이유는 질이 낮고 과잉열량의 섭취 우려와 관련 질병의 증가라고 본다. 식생활의 변화는 음식자체와 관련되어 영양소 섭취양상이 서구화(예: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증가)하며,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가치관이 식생활 행동에 나타난다. 즉 육류의 섭취는 증가하지만 서양식 요리법보다는 불고기나 갈비를 선호하는 것이며 나라별 음식선호양식으로 볼 때는 한식을 즐기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호하는 음식을 보면 한식의 선택의 빈도가 다른 형태의 음식선택보다 월등히 높아 63%로 나타나고 다음은 양식의 선호비율이 22.5%로서 중국식이나 일본식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6). 또 각 유형의 선호음식선택 안에서 수입식품의 이용 빈도를 비교하여 표 6의 ( ) 안에 표시하였다. 이로써 보면, 양식선호 학생의 수입식품 이용빈도는 다른 군에 비해서 잦은 빈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입식품을 이용하는 종류는 다음 표 7과 같다. 즉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종류는 커피와 차류이었으며 다음은 육류와 주스 음료의 비율이었다.

**표 6. 수입식품의 이용빈도와 음식양식의 선호비교**

선호음식양식 수입식품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계	
	빈도	% (%)	빈도	% (%)	빈도	% (%)	빈도	% (%)	빈도	%
매일 1회	17	7.4( 12)	10	4.0( 20)	3	1.3( 11)	2	1 ( 40)	32	14.1
주 1회 이상	45	19.8( 31)	21	9.2( 41)	12	5.3( 44)	0		78	34.4
월 1회 이상	43	19.5( 30)	10	4.0( 20)	9	4.0( 33)	1	0.4( 20)	63	27.8
계절에 1회 이상	13	5.4( 9)	4	1.7( 8)	0		0		17	7.5
년간 1회 정도	9	3.9( 6)	3	1.2( 6)	3	1.3( 11)	1	0.4( 20)	16	7.1
기타	17	7.4( 12)	6	2.4( 12)	0		1	0.4( 20)	21	9.3
계	144	63.4(100)	51	22.5(100)	27	11.9(100)	5	2.2(100)	227	100

**표 7. 수입식품이용의 종류와 음식양식의 선호 비교**

선호음식양식 수입식품종류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계	
	빈도	% (%)	빈도	% (%)	빈도	% (%)	빈도	% (%)	빈도	%
육류 및 그 가공품	26	11.5( 18)	10	4.4( 20)	6	2.8( 22)	1	0.4( 20)	43	18.9
어류 및 그 가공품	14	6.2( 10)	5	2.2( 10)	5	2.2( 19)	0		24	10.6
우유 및 유제품	17	7.5( 12)	9	4.0( 18)	3	1.3( 11)	1	0.4( 20)	30	13.2
채소류 및 가공품	4	1.7( 3)	10	0.4( 20)	0		0		5	2.2
과일류 및 가공품	13	5.7( 9)	3	1.3( 6)	2	0.8( 7)	1	0.4( 20)	19	8.4
주스 음료	26	11.5( 18)	8	3.6( 16)	2	0.8( 7)	1	0.4( 20)	37	16.3
커피 차류	40	17.6( 28)	14	6.2( 27)	9	4.0( 33)	1	0.4( 20)	64	28.2
기타	4	1.7( 3)	1	0.4( 2)	0		0		5	2.2
계	144	63.4(100)	51	22.5(100)	27	11.9(100)	5	2.2(100)	227	100.0

한식을 선호하는 학생의 가정에서 수입식품이용의 종류는 전체와 같지만 양식을 선호하는 학생의 가정은 차류 외에 육류와 채소류 및 우유류가 음료보다 높았으며 중식을 선호하는 학생은 한식 양식선호 학생보다도 수입식품의 육어류와 가공품의 이용빈도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었다.

이영순등<sup>22)</sup>은 대학생의 조사에서 외국식품이 우리식품에 미치는 파급력을 볼 때 매우 크다고 하였으며 이유는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40~45% 정도 대답하여 우리식품의 이용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소비시장의 확대 및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며, 소비자 운동을 통한 국민의 의식변화와 TV 광고 등 대중 매체를 이용한 선전효과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수원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sup>23)</sup>에서 보면 외식은 한달에 1~2회이지만 한식이 43.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국 음식으로 25.6% 서양음식은 15.7%로, 본 연구의 청소년 대상으로 한 조사와는 차이가 있지만 한식의 선호 비율은 월등히 높으며 그 다음이 양식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심경희등<sup>24)</sup>의 연구에서 도시 청소년의 외식의 경향은 입맛이 서구화되어 가는 것과 외식을 즐기는 점 및 짠맛의 선호로 우리 입맛의 식생활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주식으로 보다는 간식의 기능으로 선택하는 경향이므로 아직은 수입식품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로서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으로 수입식품의 패스트푸드 산업에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영양적으로 균형을 고려한 산업의 외식화에 대응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4. 수입식품이용 가정의 도시락인스턴트식품 이용 정도**

우리 나라 가계소비지출중에서 식품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 두 가지 특성은 가공식품의 소비지출의 증가와,

또 하나는 외식을 위한 소비지출이다. 가공식품의 소비는 미국의 96%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이는 식문화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잘 되지는 않으나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게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현재 일본 식생활의 58.3%가 가공식품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면 우리나라도 급격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최춘연<sup>25)</sup>에 의하면 가공식품은 우리의 식품소비구조를 변화시켜 밥 대신 빵이나 국수 등의 소비를 증가시켰고 주부의 시간절약을 위한 식품의 개발을 신장시켰으며 이런 현상은 점차 전통식품요리가 전수되지 못하고 옛맛을 잃어가는 경향을 가져왔다. 근래에는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활동의 요구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가족만을 돌보던 주부가 취업함에 따라 역할이 가중되고, 이런 역할가중에 따른 편이성의 추구경향은 시간절약이라는 면으로 인스턴트식품의 소비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김미향 등<sup>26)</sup> 주부의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결과, 맛은 약간 있지만 건강에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편리하다는 점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밖에는 부정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 보였다.

본 연구에서 수입식품을 사용하는 농가 청소년의 도시락에 인스턴트식품의 사용빈도를 비교하여 다음 표 8에 제시하였다.

위 표에서 보면 수입식품은 보통 주 1회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스턴트식품은 주 1~2회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을 보여 주었다. 즉 수입식품은 대체로 한달에 한번 이상은 사용한다고 보았다. 인스턴트식품의 도시락 사용빈도가 많을수록 수입식품의 이용빈도가 매일인 경우가 높으며 주 3~5회의 인스턴트 도시락 반찬을 주는 경우는 주 1회 이상 수입식품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즉 수입식품의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인스턴트식품을 도시락에 사용하는 빈도에 대한 유의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이는 인스턴트식품의 사용빈도와 수입식품의 이용빈도

**표 8. 수입식품의 사용빈도와 인스턴트식품의 도시락사용 빈도와의 비교**

수입식품	인스턴트		매일		주 3~5회		주 1~2회		전혀 안씀		계		n=399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일 1회	6	2.6	9	3.9	14	6.2	2	0.9	32	14.1			
주 1회 이상	4	1.8	25	11.1	47	20.7	2	0.9	78	34.4			
월 1회 이상	4	1.8	9	3.9	43	18.9	7	3.0	63	27.8			
계절에 1회 이상	0		2	0.9	11	4.8	3	1.3	17	7.5			
년간 1회 정도	0		1	0.4	12	5.4	3	1.3	16	7.1			
기타	2	0.9	5	2.3	9	3.9	5	2.2	21	9.3			
계	16	7.1	51	22.5	136	59.9	22	6.7	227	100.0			

\*\* $p < 0.01$

df=30  
 $\chi^2=55.4$   
 $p=0.003^{**}$

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학생의 인스턴트식품의 이용은 대구지역에서 조사<sup>26)</sup>된 바에 의하면 전혀 먹지 않은 비율은 2.8%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도시락에 인스턴트 식품을 이용하고 있고, 도시락 반찬에 대한 만족도를 볼 때 항상 만족하거나 가끔 만족하는 경우가 97%로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인스턴트 식품은 학생의 기호에서 좋아하는 경우가 72.9%로 형성되고 이는 도시락 반찬에 의해 입맛이 길들여지는 점도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생활 향상으로 점차 가공식품의 이용이 많아지는 경향도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수입식품의 이용 종류와 도시락의 인스턴트 식품의 사용빈도를 비교하여 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수입식품의 육류 및 그 가공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스턴트 식품의 이용빈도는 주 3~5회가 다른 식품의 선택보다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락의 인스턴트 식품이용이 매일인 경우 수입식품의 이용빈도가 가장 많은 것은 과일류와 그 가공품이지만 도시락 주 3~5회 인스턴트이용 군에서는 육류와 그 가공품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인스턴트 식품의 주 1~2회 이용군의 수입식품종류는 주로 커피와 차류의 이용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유의적인 차이는 볼 수 없었다.

수원지역의 식생활 형태의 연구<sup>23)</sup>에서도 소세지 어묵 참치등 이용빈도가 높았으며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인스턴트식품의 이용빈도는 높아서 적어도 주 1~2회

표 9. 수입식품의 종류와 도시락의 인스턴트 식품의 사용 빈도와 비교

수입식품종류	인스턴트식품		매일		주 3~5회		주 1~2회		전혀		계		n=399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육류 및 그 가공품	3	1.3	16	7	21	9.4	2	0.9	43	18.9	df=40 χ <sup>2</sup> =43.4 p=0.328		
어류 및 그 가공품	0		6	2.7	15	6.6	3	1.3	24	10.6			
우유 및 유제품	2	0.9	6	2.7	18	7.9	3	1.3	30	13.2			
채소류 및 가공품	0		0		3	1.3	2	0.9	5	2.2			
과일류 및 가공품	5	2.3	2	0.9	11	4.8	1	0.4	19	8.4			
주스 음료	3	1.3	10	4.4	20	8.8	4	1.8	37	16.3			
커피 차류	3	1.3	10	4.4	45	19.8	6	2.7	64	28.2			
기타	0		1	0.4	3	1.3	1	0.4	5	2.2			
계	16	7.1	51	22.5	136	59.9	22	9.7	227	100.0			

표 10. 수입식품의 구매빈도와 가족특성

빈도(%)

분류	구 분	빈도(%)							계	n=399
		매일	주 1회 정도	월 1회 정도	계절 1회 정도	년 1~2회 정도	기 타			
가족 형태	대가족	4( 1.8)	19( 8.4)	10( 4.4)	1(0.4)	1(0.4)	3(1.3)	38( 16.7)	df=24 χ <sup>2</sup> =14.6 p=0.931	
	핵가족	22( 9.7)	47(20.7)	41(18.1)	14(6.2)	11(4.9)	14(6.2)	149( 65.6)		
	편부	1( 0.4)	2( 0.9)	1( 0.4)	0(0.0)	1(0.4)	0(0.0)	5( 2.2)		
	편모	4( 1.8)	9( 4.0)	6( 2.6)	1(0.4)	2(0.9)	2(0.9)	24( 10.6)		
	기타	1( 0.4)	1( 0.4)	5( 2.2)	1(0.4)	1(0.4)	2(0.9)	11( 4.9)		
모 학력	무학	1( 0.4)	2( 0.9)	3( 1.3)	0(0.0)	0(0.0)	0(0.0)	6( 2.7)	df=24 χ <sup>2</sup> =62.0 p=0.001***	
	국졸	0( 0.0)	4( 1.8)	6( 2.7)	10(4)	4(0.8)	1(0.4)	16( 7.1)		
	중졸	12( 5.3)	25(11.1)	33(14.7)	3(1.3)	5(2.2)	9(4.0)	87( 38.7)		
	고졸	10( 4.4)	30(13.3)	14( 6.2)	10(4.4)	3(1.3)	10(4.4)	77( 34.2)		
	전문대졸	8( 3.6)	15( 6.7)	7( 3.1)	3(1.3)	3(1.3)	1(0.4)	37( 16.4)		
대졸	1( 0.4)	1( 0.4)	0( 0.0)	0(0.0)	0(0.0)	0(0.0)	2( 0.9)			
모 직업	무응답	1( 0.4)	2( 0.9)	3( 1.3)	0(0.0)	0(0.0)	0(0.0)	6( 2.6)	df=12 χ <sup>2</sup> =42.98 p=0.000***	
	없음	16( 7.1)	30(13.2)	16( 7.1)	5(2.2)	7(3.1)	3(1.3)	77( 33.9)		
	있음	15( 6.6)	46(20.3)	44(19.4)	12(5.3)	9(4.0)	18(7.9)	144( 63.4)		
계		32(14.1)	78(34.4)	63(27.8)	17(7.5)	16(7.1)	21(9.3)	227(100 )		

\*\*\*p<0.001

는 도시락에 싸주는 형편이다. 또 고영자등<sup>27)</sup>의 연구에서 도시락의 반찬수는 대개 2가지이며 47%로 나타나고, 1가지만 가져온 학생도 28%이나 되나, 3가지 이상일 경우는 24%로 나타나서 이로 미루어 보면 도시락 반찬은 주로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영순등<sup>28)</sup>의 연구에서도 학교에 따라 반찬수는 대체로 2가지가 27%이고 3가지는 39%이며 4가지 이상도 33%이고 또 다른 실업계 고에서는 2가지의 비율이 50%이어서 한두번의 인스턴트 수입식품이 미각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미숙 등<sup>12)</sup>에 의한 농촌 중학생의 경우를 보면 도시락의 영양실태는 권장량의 1/3을 먹어야 함에도 거의 모든 영양소가 권장량보다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입식품의 이용은 더욱 식습관의 나쁜 방향으로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 수입식품 이용 가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가족 특성 비교**

수입식품을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 가족특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가족특성과 수입식품의 구매빈도는 다음 표 10과 같다.

수입식품의 구매빈도를 가족의 특성으로 비교하여 보면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빈도수가 많은 것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편모 가정에서도 빈도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상에서 수입식품의 섭취빈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머니 학력과 수입식품의 구매빈도와는 유의수준 0.001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 $p=0.001$ ). 또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더 많은 수입식품의 이용을 생각할 수 있었으나 주 1회 정도 이상의 빈도로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직업이 없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았음이 나타나 보이고 있으며 어머니 직업과 수입식품의 구매빈도와도 유의수준 0.001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p=0.000$ ).

가족형태에 따른 수입식품의 종류선택의 차이는 별로 보이지 않으나 생활정도를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못

**표 11. 구입하는 수입식품의 종류와 가족특성 비교**

		육류가공	어류가공	유류	채소류	과일류	음료	커피차	기타	계	n=399
가족형태	대가족	7( 3.1)	5( 2.2)	4( 1.8)	1(0.4)	5(2.2)	5( 2.2)	11( 4.9)	0(0.0)	38( 16.7)	df=32 $\chi^2=11.52$ $p=0.000^{***}$
	핵가족	30(13.2)	15( 6.6)	20( 8.7)	3(1.3)	10(4.4)	24(10.6)	44(19.4)	3(1.3)	149( 65.6)	
	편부	2( 0.9)	1( 0.4)	0( 0.0)	0(0.0)	0(0.0)	1( 0.4)	1( 0.4)	0(0.0)	5( 2.2)	
	편모	3( 1.3)	2( 0.9)	4( 1.8)	1(0.4)	3(1.3)	5( 2.2)	5( 2.2)	1(0.4)	24( 10.6)	
	기타	1( 0.4)	1( 0.4)	2( 0.9)	2(0.9)	1(0.4)	2( 0.9)	3( 1.3)	1(0.4)	11( 4.9)	
생활정도	풍요	1( 0.4)	0( 0.0)	1( 0.4)	0(0.0)	0(0.0)	0( 0.0)	2( 0.9)	0(0.0)	4( 1.8)	df=32 $\chi^2=45.6$ $p=0.056$
	잘살	8( 3.5)	9( 4.0)	6( 2.6)	0(0.0)	6(2.6)	9( 4.0)	12( 5.3)	2(0.9)	52( 22.9)	
	중등	31(13.7)	14( 6.2)	23(10.1)	3(1.3)	12(5.3)	27(11.9)	47(20.7)	2(0.9)	159( 70.0)	
	못살	3( 1.3)	1( 0.4)	0( 0.0)	0(0.0)	1(0.4)	1( 0.4)	3( 1.3)	1(0.4)	10( 4.4)	
	궁핍	0( 0.0)	0( 0.0)	0( 0.0)	0(0.0)	0(0.0)	0( 0.0)	0( 0.0)	0(0.0)	0( 0.0)	
식행편	못먹음	1( 0.4)	0( 0.0)	0( 0.0)	3(1.3)	0(0.0)	0( 0.0)	2( 0.9)	1(0.4)	7( 3.1)	df=16 $\chi^2=39.43$ $p=0.001^{***}$
	보통	28(12.3)	15( 6.6)	21( 9.3)	2(0.9)	10(4.4)	24(10.6)	45(19.8)	4(1.8)	149( 65.6)	
	잘먹음	14( 6.2)	9( 4.0)	9( 4.0)	0(0.0)	9(4.0)	13( 5.7)	17( 7.5)	0(0.0)	5( 2.2)	
식사개념	기아해결	10( 4.4)	7( 3.1)	12( 5.3)	2(0.9)	10(4.4)	14( 6.2)	18( 7.9)	3(1.3)	76( 33.5)	df=32 $\chi^2=29.3$ $p=0.604$
	습관적	12( 5.3)	2( 0.9)	5( 2.2)	0(0.0)	2(0.9)	6( 2.6)	17( 7.5)	1(0.4)	45( 19.8)	
	건강	17( 7.5)	13( 5.7)	11( 4.9)	2(0.9)	6(2.6)	16( 7.1)	27(11.7)	0(0.0)	92( 40.5)	
	화목	3( 1.3)	1( 0.4)	2( 0.9)	1(0.4)	0(0.0)	0( 0.0)	1( 0.4)	1(0.4)	9( 4.0)	
	식문화 계승	1( 0.4)	1( 0.4)	0( 0.0)	0(0.0)	1(0.4)	1( 0.4)	1( 0.4)	0(0.0)	5( 2.2)	
인스턴트	무응	1( 0.4)	0( 0.0)	1( 0.4)	1(0.4)	0(0.0)	0( 0.0)	0( 0.0)	0(0.0)	2( 0.9)	df=40 $\chi^2=43.4$ $p=0.328$
	매일	3( 1.3)	0( 0.0)	2( 0.9)	2(0.9)	0(0.0)	5( 2.2)	3( 1.3)	0(0.0)	16( 7.1)	
	주 3~5	6(19.1)	6( 2.6)	6( 2.6)	0(0.0)	2(0.8)	10( 4.5)	10( 4.4)	1(0.4)	51( 22.5)	
	주 1~2	21( 9.3)	15( 6.6)	18( 7.9)	3(1.3)	11(4.9)	20( 8.8)	45(19.8)	3(1.3)	136( 59.9)	
	전혀	2( 0.9)	3( 1.3)	3( 1.3)	3(1.3)	2(0.9)	1( 0.4)	4( 1.8)	1(0.4)	22( 9.7)	
계		43(18.9)	24(10.6)	30(13.2)	5(2.2)	19(8.4)	37(16.3)	64(28.2)	5(2.2)	227(100 )	

\*\*\* $p<0.001$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육류와 가공품의 선택이 다른 군에 비해 높은 편이고 잘사는 편이라고 답한 경우에는 어류와 그 가공품의 선택이 많은 편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0$ ). 또 식생활 형편과 수입식품의 종류에서도 유의수준 0.001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p=0.001$ ). 잘 먹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오히려 수입식품의 육류와 어류 및 그 가공품의 소비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식사와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습관적으로 먹는다고 한 사람은 육류와 가공품이 많고 어류는 오히려 월등히 적으며 건강을 생각하여 먹는다고 한 경우는 어류와 그 가공품의 소비가 더 많은 편이었다. 인스턴트식품의 소비와 관계를 보면 주 1~2회와 주 3~5회에 모여 있는 편이어서 구분은 어려우나 이들은 대개 커피와 차류의 소비가 많고 육류와 가공품에 대해서는 약간 적은 편임을 나타내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당질을 다량 섭취하는 지역은 채소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 수입식품으로 인한 변화는 적으나 문수재등<sup>29)</sup>의 연구에서 단백질 식품의 소비는 가공류를 비롯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 단백질 식품은 수입식품으로 많이 대체되는 것으로 보인다.

#### IV. 결 론

청소년이 있는 농촌가정의 수입식품 이용실태를 알기 위해 중학생 399명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을 이용하는 가정은 전체의 56.9%로서 수입식품을 쓰지 않는다는 가정보다 더 많았다.

2. 수입식품의 이용은 어머니의 직업이나 생활정도 식생활에 대한 형편등과는 무관하지만 생활정도가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에서 이용빈도는 많게 나왔다.

3. 수입식품을 이용한다는 가정의 청소년도 한식을 가장 선호하여 63%나 차지하였으며, 양식을 좋아하는 청소년의 가정은 수입식품의 이용빈도가 잦았다. 중식을 선호하는 경우는 수입식품중 육어류와 가공품이 이용이 많았다.

4. 도시락의 인스턴트 식품이용빈도를 구분해보면 수입식품의 이용빈도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5. 도시락 인스턴트식품 이용빈도별로 볼때 주 3~5회 이용군에서는 육류수입식품 이용이 많았으나 주 1~2회 인스턴트식품을 이용한다는 군에서는 커피 차류의 이용이 높았다.

이상에서 볼 때 우리의 수입식품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약하다고 보며 특히 도시락의 인스턴트식품 이용빈

도의 증가와 수입식품 이용빈도와 상관을 보임을 보면 청소년의 미각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더욱 철저한 분석에 의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우리문화의 계승측면에서도 식생활 문화의 발전과 함께 해야하는 우리농산물 애용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1. 김정옥, 이규한. 수입식품의 품질조사연구(1)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국영양식량학회지 23(2): 328-332, 1994.
2. 이종순. 중국산 녹도전분의 물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8(1): 1-7, 1992.
3. 안호근. 농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정대책. 농촌생활과학(춘계호) 23-27, 1992.
4. 김용자.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소비자 자세. 농촌생활과학(춘계호) 28-33, 1992.
5. 이서래, 김중만.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우리 식문화 유지의 필요성. 농촌생활과학(춘계호) 17-24, 1994.
6. Hinton, M.A. and Eppright, E.S. Psychologic. sciologic. and physiologic factors-eating behavior and dietary intake of girls 12 to 14 years old. J. Am. Diet. Assoc. 43: 223, 1963.
7. Foley, C. and Hertzler, A.A. Attitude and food habits-a review. J. Am. Diet. 73, 1979.
8. Dwyer, J.J., Feldman, J.J., et al. The social psychology of dieting. Health Soc. Behav. 11: 269, 1970.
9. Dorcus, R.M. Food Habit-Their origin and control. J. Am. Diet. Assoc. 18: 738, 1942.
10. Chassy, J.P. Van Veen, A.G. and Young, F.W. The application of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 to the study of food habits and food consumption in an Industrializing, area. Am. J. Clin. Nutr. 20(1): 56-63, 1967.
11. Schware, N.E. Nutritional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high school graduates. J. Am. Diet. Assoc. 66: 28- 31, 1975.
12. 이미숙, 최경숙, 백수경. 충북괴산군송면 중학생의 영양실태조사 -1. 급식실시를 위한 예비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7(7): 760-775, 1994.
13. 이영미. 도시청소년의 식생활행동 및 식품가치평가조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14. 문수재. 영양과 건강 -현대인의 생활영양-. 신광출판사, 1990.
15. 황혜선. 목포지역대학생의 식생활행동 및 영양실태조사. 한국영양식량학회지 20(1): 65-71, 1991.
16. 이성운. 서울시내 남여중학생의 섭식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7. 이원희, 김미향, 한재숙. 대구시내 중학생들의 식습관 및 기호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식량학회지 17(4):

- 290-304, 1988.
18. 박은숙. 청소년의식이섭취와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복용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식량학회지 **24**(1): 30-40, 1995.
  19. 하대열, 김혜영, 김영진. 전국 중학생 어머니의 영양 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 한국영양식량학회지 **24**(1): 10-18, 1995.
  20. 하점순, 이효지. 중학생의 식행동이 건강상태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3): 225-241, 1995.
  21. 오세영. 생물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본 한국인의 식생활 행동: 지난 50년을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8**(4): 373, 1993.
  22. 이영순, 임나영, 박광희.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식문화에 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4): 369-378, 1994.
  23. 송병진, 홍성야. 수원지역 식생활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8**(1): 49-56, 1992.
  24. 심경희, 김성애. 도시청소년들의 패스트 푸드의 이용 실태 및 의식구조. 한국영양학회지 **26**(6): 801-811, 1993.
  25. 최준언. 현대산업사회와 식생활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3): 213-222, 1995.
  26. 김미향, 한계숙, 이효수. 도시주부의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에 관한 연구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6**(3): 69-78, 1988.
  27. 고영자, 김영남, 모수미.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식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남여 학생의 비교- 한국영양학회지 **24**(5): 458-458, 1991.
  28. 유영순, 김선희. 인문계 실업계 여고생의 비만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2**(2): 185-195, 1994.
  29. 문수재, 양일선, 이민준, 차진아. 세계각국의 식품소비 구조, 영양소 섭취수준 및 영양 문제의 변화양상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2): 199-213, 1991.
  30. 白南薰.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비자의 자세. 농촌생활 과학 **15**(1): 14-16, 1994.
  31. 이한기, 한귀정. 농촌 소비자행동 조사분석. 농촌생활 과학 **13**(1): 19-22, 1992.